

[Radio] 한중 수교의 의미 (1992.08.)

수교의 의미

바로 오늘의 시점에서 한중수교를 통해 6 공화국은 마지막 순간에 이른바 북방외교의 결정적 허를 노출시켰다고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진 찍기 매우 좋아 하지요? 제주도에서 고르바초프와 사진 한 장 때문에 무려 10 억불인가 15 억 불인가를 지불했어요.

아주 사실대로 표현한다면, 약 1 조원이 되는 현찰을 떼인 셈이지요. 이번에는 천안문 광장에서 덩 샤오핑과 사진 한 장 찍는데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요? 벌써 중국에 대한 20 억 불 차관설이 나도는 상황입니다.

사진 찍기를 아무리 좋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중국수교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저의 입장에서, 이번과 같이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구소련에 떼긴 것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수교 자체보다는 지금 서로 서명을 해야 하는 조기수교에 반대할 뿐입니다. 기실 수교조인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외무장관 다시 한 번 생각정리하고 돌아와 주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시점에서의 공식적인 한중수교는 사회주의 체제나 중국사회의 전통에 대한 이해도 없이 중국과 한국이 같은 한자문화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하루아침에 전문가로 돌변한 관변학자와 역사의식이나 결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이라고는 없는 외무관료, 그리고 세계사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커녕 소박한 세계관이나 철도

없는 정치 지도자가 함께 만든 작품이 바로 한중 조기수교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수교를 서두르고 있는 우리 측의 사정을 상세히 분석할 의사가 없습니다. 단지 왜 수교를 서두루지 말아야 하는 원인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림으로써, 현재의 문제점은 물론, 앞으로 수교후의 문제수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수교를 서두루지 말아야 하는 첫째 이유는 중국이 현재 위기상황 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백두산에 관광 다녀왔던 분은 즉각 반박하실 겁니다. 아무 문제없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듣고 싶어 하는 바는 전문가의 견해지, 관광객의 견해는 아니겠지요. 두어 달 전 제가 출간한 위기의 중국 어디로, 사회사적 이해와 전망 이라는 저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재 중국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째, 1989 년 발생한 6.4 천안문 사태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천안문사태는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통상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보는 눈인 권력의 투쟁의 산물도, 반공의거도 아닙니다. 1949 년 이후 형성된 중국사회주의 체제에 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분출된 사건입니다. 군주의 전통과 부자 되기 전통이 대립해온 중국사회주의 역사의 흐름을 배경으로, 당중심의 사회와 경제개혁의 부작용, 그리고 폭증하는 세대 간의 갈등 등의 요인들이 사건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둘째, 위기의 중국이라 말할 수 있는 요인은 전체 사회주의권의 동향입니다. 소련과 동구가 몰락하고 북한이나 월남 등도 상당히 체제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 시점에서, 세계 사회주의권이 과연 현재의

위기상황을 의연히 극복해낼 수 있을지는 쉽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들 사회주의 국가가 심화된 위기를 연쇄적으로 겪어 그 여파가 중국에 미치고, 더욱이 대만이나 홍콩의 존재나, 상당수의 해외화교의 존재로 외부 변화에 무조건 패쇄적으로 대처해 갈 수 없는 중국은 그러한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셋째, 덩 샤오핑의 죽음은 지도체제의 동요를 초래하여, 중국을 엄청난 천하대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이 마오 쩌똥, 즉 모택동의 죽음을 계기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마오 쩌똥 뿐 아니라, 저우 언라이 즉 주은래 등 혁명원로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현재 88 세인 덩 샤오핑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리 선념 즉 리 시에니엔은 오히려 덩 샤오핑 보다 5살이 더 적습니다.

양 상쿤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기한번 걸려도 생명이 오락가락할 연령입니다. 마오와 덩을 비교하고, 그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덩의 죽음은 마오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지도력 위기를 초래할 것은 자명합니다.

만약 그 혼란이 중국 전체를 20 세기 초 군벌시대로 회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련의 경우를 보십시오. 연방은 일순간에 사라졌고 거대한 내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위기요인들이 단순히 먼 훗날의 일들이 아닙니다. 향후 2, 3년 안에 가시화될 수도 있는 요인들입니다.

한중 조기수교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대만문제입니다.

이왕 실리외교를 표방하였으니, 의리 따위의 명분으로 대만문제를 거론할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실리를 위해서

대만문제는 심각히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우선 대만은 우리의 주요 경제교역국이 될 수 있습니다. 금년 현재 중국 대륙은 우리의 세 번째 큰 무역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교류를 해온 대만과의 교역규모는 연 30 억불 가량으로, 오히려 대륙보다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만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용해 오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대만의 금보유고는 세계에서 첫째냐 둘째냐를 다투고 있고, 외환보유도 충분히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만은 복지에 소홀히 해와 본격적인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년전 대만이 아직 개인소득 3 천 불 수준일 때, 제가 대만사람은 2 천 999 불은 먹는데 쓰고, 주택과 후생에는 단 1 불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는 농담을 대만 학자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앞으로 6 개년 동안 총 3 천 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엄청난 액수이며, 한국에는 제 2의 월남수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벌써 한중수교 소식을 들은 대만 정부는 이 6 개년 계획 3 천억 불 돈벌이에 한국기업의 입찰 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문제가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이유는 중국인의 특수한 정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마침 대만, 홍콩 및 중국 대륙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대만과 대륙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 때인데도,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악감정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서로 민족적 동질감으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직도 북한과의 축구경기에서 일방적으로 응원하는데 익숙해있던 저에게 오히려 당혹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6.25 사변 등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운운하실 분도 계실 텐데, 대만의 국민당과 대륙의 공산당은 자그마치 30 년간의 대립과 10 여년간의 실질적 내전상태에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우리 민족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러나 정서면에서 확실히 우리와는 다릅니다.

실제로 최근 대만과 중국은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변화를 보여 왔습니다. 대만은 입법원, 즉 국회에서 본토교류를 현실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대륙은 금세기내 대만흡수를 포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륙에는 대만 관광객인 때 지어 다니고, 경제교류는 거의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우리의 남부관계와는 그야말로 천지차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만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을 때, 대륙의 일반 중국인이나 공산당 지도자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겉으로야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를 경멸할 것입니다. 중국의 엘리트들, 그들이 대만사람이건 대륙 공산당원이건, 우리 민족에 대해 비하하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화의식의 발로이지요. 우리말에 때 놈들은 음흉해, 도대체 무얼 마음에 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관료나 기업인들이 그들의 애매한 태도에 녹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노를 하지 않으니까요. 또한 그들은 의리와 신의를 중시합니다. 어쨌든 중국은

우리에게 수교조건으로 대만과의 단교를 강요하면서, 한중수교 이후에도 대만과의 관계 개선은 꾸준히 추진할 것이며,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를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번 수교 조건에 명동의 중화민국 대사관, 즉 대만 대사관을 중국정부에게 인수시킬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내에서는 이전에 프랑스가 했던 것처럼, 강제로 대만으로부터 접수하여 인도해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싸라기 같은 땅 값도 땅 값이지만,

청말 부터 있어 왔던 대사관을 강제로,

그것도 공권력을 동원해서 중국정부에 인도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난날 민항기 사건 있을 때, 대만에서 존스컵 농구대회가 있었고, 우연히 우리의 이충희 선수가 대만선수에게 반칙을 범했을 때 그 장면은 하루 종일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텔레비전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명동 대사관의 몰수를 강제 집행하는 장면은 아마도 비디오로 만들어, 중국대륙이 대만을 흡수통일한 후에라도 영원히 보관할 수 사람들이 중국인들입니다.

우리 외교는 무조건적인 원칙주의 외교나 약삭빠른 실리주의 외교보다는 이제부터 실질주의 외교,

즉 득도 보고 덕도 보이는 쪽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지금은 이상욱 외무장관이 만년필을 꺼내기 전에라도 다시 재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조기수교를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는 공식수교 없이 현재의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경제협력이나 다른 정치적 협력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으로, 수교 후의 전망 연관되는 것이니 나중에 상세히 이야기하기로 하지요.

수교 후의 전망

현재 중국과의 교류 상태는 수교의 주역인 이상옥 외무장관의 말을 빌려 표현하고자 합니다.

결혼식만 남겨놓은 사실혼 관계. 이장관의 표현이야말로 가장 적절하며, 이런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정식결혼식을 성대히 거행한다해도 부부의 금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주위사람들 앞에 다소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서양 사람들이나 일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지나친 도덕주의, 원칙주의에 불과해, 실리외교나 실질외교에 입장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투자심리의 안정 등 몇 가지 소득이 있고, 일시적 교역 붐이 일겠지요. 물론 백두산을 보러 가는 사람들의 줄도 길어지고, 중국여행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지요.

현재의 한중교류 상황을 봅시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작년에 대표부가 설치된 후에 서울에서, 북경에서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2 월의 한중 무역협정, 5 월의 한중투자보장 협정으로 장사하는데 별 어려움도 없습니다.

인적 교류면에도, 인천에서 출발하는 배에는 어학연수나 백두산 관광이다 해서 방학 철에는 발들일 틈 없이 가득칩니다. 지금도 백 오십만원 가량만 있으며, 얼마든지 중국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인사의 교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관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 올 정도입니다. 우리 측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조기수교 명분 중에 하나인 북한과의 문제도 공식수교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두개의 중국, 더 나아가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독일 언론이 걱정하는대로 우리 한민족의 통일문제는 오히려 실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무부에서는 한반도의 안정 운운하는데 이것도 수교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중국은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북한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교가 남북관계의 급속한 냉각을 가져오리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 동숭동에는 중국서적이 20 만 부 가량이 판매대에 올라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중국 책은 정말 싹니다만, 공산당의 이념을 논한 책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신부가 면사포 사진 찍는 것 외에는 혼인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지 않겠어요?

수교 후의 개선책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수교장의 잉크가 이미 마른 후일 수가 있겠지요. 다른 문제와 달리 외교문제는 아무리 주무장관이 잘못하거나 정권이 오판했을 때도 다시 물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들 합니다. 저는 현시점에서의 한중수교를 반대하지만, 일단 엮질러진 물은 무조건 엮지른 아이를 야단칠 것이 아니라, 일단 쏟아진 물은 다시 집어넣든지, 아니면 걸레질을 하든지 해야겠지요. 수교 후의 수습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기수교를 반대했던 문제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우선 20 억 불 차관과 같은 비실질적이며 굴욕적인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년에는 에어컨도 없이 여름을 보내는 등, 과소비를 적극 억제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에는 20 억 불은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둘째, 대만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상징적으로라도 명동대사관의 강제접수 같은 행동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른바 사우디아라비아 식 처리 방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대만과 단교했음에도 사우디 주재 대만주재원들을 이전의 대사관시절과 똑같이 우대하는 등 더욱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긋한 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는 또한 바람직한 것은 국익적 차원에서 보면, 아쉬운 쪽은 중국이지 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중국이 일본의 아키히토 천황을 초대했고, 천황의 중국방문은 별탈 없이 성사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과서 파동과 같은 강경한 입장에서 중국은 이미 후퇴하여, 천왕이 중국인에게 과거의 행동을 사과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천안문사태 이후 다른 나라의 도움에 얼마나 중국이 목말라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만약 냉전의 상징인 한국이 수교한다면, 다른 나라도 다시 중국의 개방개혁의지를 재평가할 것이라는 논리지요.

또한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은 제살 깎는 식의 상호경쟁을 수교 후에는 지양해야 합니다. 한중 항공로 선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원인은 중국의 번덕이 아니라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지나친 경쟁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

방안 중 하나는, 지역적 전담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S 그룹은 북경근처, 또 다른 S 는 만주, H 그룹은 상하이, D 그룹은 꾸앙퉁 등 지역을 선정하여, 그 내에서 상호경쟁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중국 땅덩어리가 커서 일 뿐 아니라, 중국은 전통적으로 몇 개의 시장권역으로 나누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할 점은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국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한자문화권이기에 쉽게 중국문헌에 접근할 수 있고, 공자나 맹자님 덕분에 중국문화는 마치 우리들 자신의 문화처럼 착각하고 공부하지 않고 중국에 아는 체하는 것은 소위 전문가에서 부터 일반인 까지 다 해당됩니다. 중국인의 생활이나 언어나 거의 모든 것에 우리와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은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먹을 때 겉의 파삭파삭한 부분을 떼버리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닭다리보다도 더 좋은 부위를 칩니다.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고 닭 장사를 한다면, 그 사업은 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정상회담에 우리 통역관을 갖지 못한 채 진행했던 소련과의 관계 개선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중국에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가능하면 친한 인사도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은 꾸안시, 인간관계의 나라입니다. 인맥을 형성시켜 놓으면, 그 어떤 투자보다 강합니다. 미국기업이 실패하고 일본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물론 친한 세력의 조성은 느긋하게 끈기 있게 추진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중국에 대한 무조건 적인

우호감정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에는 일본 36 년의 역사도 있었지만, 몽고족의 침입, 청 만주족의 침입이 항상 있었습니다. 솔직히 중국을 방문할 때 마다 느끼는 감정은 섬뜩함입니다. 전과 달리 여성의 옷이 더 화려해졌지만, 일요일에도 일합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수영과 다이빙 같은 돈 드는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중국은 땀습니다. 일본이 초강대국이어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중국이 강대국이 되면 그 또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벌써 중국은 우리보다 많은 액수의 돈을 미국시장에서 벌입니다. 12 억도 넘는 인구의 중국 경계해야 합니다. 중국인이 태어난 장사꾼이라면, 장사꾼의 절정은 재주는 판사람이 부리고 돈은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갈 때입니다.